

“여러분의 한표가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지방선거

각당 부동산 공약 마지막 호소

5·31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0일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들은 후보들은 최후의 1분까지 최선을 아끼며 유권자들을 만나 총력전을 펼쳤다. 후보들은 아직도 표심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산이 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정리하는 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자정 이 넘도록 감시 활동을 펼쳤다.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시민에게 당부드리는 글’을 통해 “광주가 막무가내 행정으로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전문경영 행정으로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이날 조 선대 정문 등고인사에 이어 남광주시장, 운암주공 3단지, 제2청사 사거리, 금호동 회재회관, 대인시장 등을 쉬지 않고 돌며 48시간 마라톤 유세의 마친표표를 찍었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전남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당의 인기가 추락해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전남발전을 위한 열정과 함께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온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백운광장에서 출근 유세를 시작으로 광주 전역을 한 시간단위로 이동하며 부동산 흡수와 막판 지지세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광태 후보는 유세연설을 통해 “5월

31일은 무능정권·배신정당 열린우리당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현재 전국 어디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선거가 끝나면 결국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광양·여수·순천·장흥·영암에 이어 밤 9시 목포 하당에서 정종득 목포시장 후보 등과 함께 마무리 유세를 갖고 부동산 흡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월 31일은 광주·전남의 미래의 희망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소외와 낙후의 지역으로 정체하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병윤 후보는 새벽부터 자정까지 기자자동차·금호타이어·월곡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오른쪽에서 두번째), 임택 동구청장 후보(맨 왼쪽), 김희철 남구청장 후보(맨 오른쪽)는 30일 오전 10시 정동영 당 의장(왼쪽에서 두번째), 양형일 의원, 염동연 의원, 지병문 의원, 김태홍 의원 등과 함께 광주공원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왼쪽에서 두번째)와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오른쪽에서 두번째)가 30일 오전 박 후보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주연 서구청장 후보(맨 왼쪽)와 송광운 북구청장 후보(맨 오른쪽)와 함께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 12명·전남 37명 비례대표 어떻게 유효투표 5% 이상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 배분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는 3명, 전남은 5명이고 기초의원의 경우 광주는 9명, 전남은 32명 등 모두 49명.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일이 다 되도록 비례대표 의원의 배분 방법을 모른 채 투표에 임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우선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배분된다. 득표율 5% 이하 정당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득표율 5% 이하를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수만 비례대표 배분의 기준이 된다. 즉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해서 산출한 수의 정수(整数: 소수점 뺀 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한다. 나머지 의석은 단수(端數: 소수점 아랫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한다.

정원이 5명인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유효투표총수 1만300표 중 A당 득표수 6천100표, B당 3천표, C당 900표, D당 300표로 나타났을 때 득표수가 5%에 미달한 D당을 제외한 A, B, C 3개 정당만이 의석 배분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의석 수를 계산해보면, A당은 (6100/10000)×5(의원정수)=3.05로 3석을 차지하고, B당은 (3000/10000)×5=1.5으로 1석을 차지하고, C당은 (900/10000)×5=0.45로 0석이 된다. 하지만 잔여 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됨에 따라 B당에 추가로 1석이 배분돼 결국 A당 3석, B당 2석, C당 0석이 된다.

다만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 한 정당의 득표를 막기 위해 특례규정을 뒀. 한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수를 배분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려도 정수 5명의 비례 광역의원은 3석까지만 가능하고 3명이 정수일 때는 2명까지 가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표 행사 이렇게

투표지 1장에 한후보만 한번에 3명씩 두번 투표

5·3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담당할 올바른 지역 일꾼을 뽑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돼 모두 6종류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등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무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른 투표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투표 상식’.

Q) 지역구 기초의원은 2~4명을 뽑는데, 투표용지에도 2~4명을 찍어야 하나.

A) 유권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다. 이번 지방선거 중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85년 12대 총선 이후 20여년만에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한 선거구에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기초의원을 뽑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당에서도 2~4명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에서 후보 감시와 을씨, 한나라당에서 병씨와 정씨가 각각 출마했다고 할 때 투표용지에는 이를 순서에 따라 1-가, 1-나, 2-가, 2-나 식으로 각각 표시해 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단 한 명만 기표해야 한다. 4명을 뽑는다고 해서 4명 모두에게 기표하면 바로 무효표가 된다. 또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두 정당 이상에 기표하면 역시 무효표가 된다.

Q) 투표용지가 6장인데, 어떤 식으로 투표하나.

A) 선관위는 종전에는 투표소마다 5개의 투표함을 배치했지만 투표용지 증가로 인한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2개의 투표함만 두고 투표함 당 3장의 용지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유권자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용지 색깔은 연두색(기초단체장),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 백색(광역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청회색(비례대표 광역의원) 등이다.

Q)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다던데.

A) 투표소 용지를 받고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기표봉만 있고 인주가 없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인주가 내장돼 있는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주를 기표소 안에 비치하지 않는다. 만년 기표봉 사용은 인주를 사용한 투표용지가 접힐 경우, 반대편에 인주가 묻어 여는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만년 기표봉 사용이 익숙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 만년 기표봉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기표를 할 수 있는 배려도 했다.

Q) 투표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신분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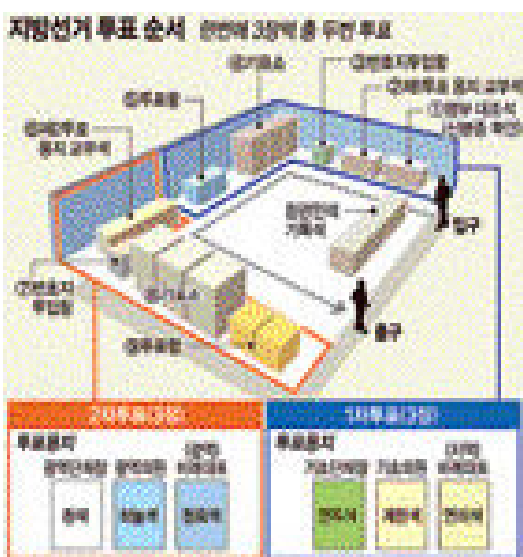
A) 신분증이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이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자격증 등과 그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Q) 투표소 위치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본인인 투표할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잘 나와있다. 이를 보실한 경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도 본인의 투표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인주 기표봉속에 내장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같은당도 한명만 기표



지방선거 투표 순서. 화면에 3장씩 두번 투표

증, 자격증 등과 그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Q) 투표소 위치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본인인 투표할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잘 나와있다. 이를 보실한 경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도 본인의 투표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로렌시아
6월, 금호지구에서 펼쳐집니다

다해타인실업 (주) 씨티종합건설 (주)